

로컬리더스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노인대학 졸업식

대한노인회 군산지회(회장 황궁택) 제36기 노인대학(회장 성귀자) 졸업식이 23일 군산지회 2층 강당에서 열렸다.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부설 노인대학은 지난 3월 24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8개월 동안 건강증진을 위한 웃음치료, 요가, 라인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으며, 이날 1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의로 시작했던 2016년 노인대학은 올해 제 36기 졸업식을 맞이하면서 민화의 결실을 맺어 더욱 빛난 하루였다.

김양원 군산부시장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지혜가 행복한 노후의 자기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준치 위한 성명서 발표

조선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촉구

군산 지역 1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송미숙)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준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23일 오전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는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조선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과 회생방안 마련, 새로운 조선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관과 민이 힘을 합쳐 유지 노력을 펼친 결실로 지난 2008년 군산시에 동지를 틈 이레, 매출 1조 2천억 원, 고용인원 6500여 명, 군산지역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등 군산의 경

제 불황을 예고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준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군산조선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과 정부의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및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군산조선소를 위한 회생방안을 마련할 것, 정부가 조선 산업의 고용인정과 지역경제 파탄을 막을 새로운 조선산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제 불황을 예고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준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군산조선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과 정부의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및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군산조선소를 위한 회생방안을 마련할 것, 정부가 조선 산업의 고용인정과 지역경제 파탄을 막을 새로운 조선산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군산시가 국민안전처로부터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

군산시는 노후주택 밀집지역, 여성 안심 귀가길, 어린이보호구역 등 우범지역 내에 방범용 CCTV 설치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 자체 예산으로만 이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군산시는 특별교부세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차당번호 인식장치 10개소를 포함, 취약지역 52개소에 방범용 CCTV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안전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중앙지구대 자살하려는 노인 가족에게 인계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 중앙지구대(대장 김용태)에서는 지난 21일 늦은 밤 전남 화순에서 사라진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공조요청 된 신고를 접수하고 익산역 일대 수색 중 발견하여 소지하고 있던 농약을 인의제출 받고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할아버지는 현재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막내딸의 사형선고 같은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아 자살을 결심한 후 사라졌고 위치추적 결과 할아버지가 익산역주변을 배회 하고 있어 최경주 순경의 1명이 신속히 출동해 익산역 일대는 살살히 수색 하던 중 버스정류장에 인상착의가 비슷한 노인을 발견했다.

발견 즉시 다가가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상황실에 발견 보고를 하고 지구대로 동행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도중에 자살을 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농약병을 발견, 인의제출 받고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하였다.

/익산=정왕원기자

익산서 중앙지구대 길 잃은 어르신 인계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는, 21일 순찰 중 길을 잃고 헤매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특정조희 및 마을이장 등을 통해 가족과 연결되어 안전하게 인계 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공감차안을 구현했다.

김현남 순경은 112순찰 중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사는 곳을 확인하자 말을 하지 못해 메모지를 주어 딸이 사는 아파트에 자신의 처와 같이 왔다 바람을 쐬러 나왔는데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는 진술을 확보 하고 대상자를 지구대 보호한 후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할아버지가 적어 준 정보로는 보호자를 찾을 수 없었고 특정조희 실시하여 정확한 주소 파악하여 주소지 파출소와 연락하여 마을 이장 연락처를 확보했다.

할아버지의 가족은 연락처를 모르나 아들 친구 연락처를 알려주어 친구와 통화 후 아들과 연락, 익산에 사는 딸과 또다시 연락되어 위소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익산=정왕원기자

원광보건대 기숙사 설계입찰 자격제한 '논란'

"기숙사 1만㎡ 실적업체 도내에 전혀 없어 지역 건축사사무소 원천배제"

원광보건대(총장 김인중) 기숙사를 건립을 위해 최근 공고한 '원광보건대 행복기숙사 건립사업 설계용역' 입찰공고가 지나친 실적제한으로 도내 업체참여가 원천 배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행복기숙사는 익산시 신웅동 346-2 교내 4,100㎡(약 1,240여 평)에 1층 필로티, 2~7층 학생기숙사 및 게스트룸 734㎡ 등 총 8,568㎡ 건립사업으로 학생 350명과 게스트 35명을 수용하는 132여여인이 투입될 기숙사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지난 17일 공고했다.

이 공고문에는 입찰자격을 공고일(11월 17일) 기준 최근 5년간 기숙사 용도 단일건물로서 연면적 1만㎡(3천평) 이상 단독 설계용역과 건축사가 완료 실적업체로 명시했으나 전복건 축사회는 "단일건축물로 기숙사 1만㎡ 실적업체가 도내에는 전혀 없어 지역 건축사사무소 입찰참가가 원천 배제됐다"는 불만이다.

이에 지역건축사들은 "타기관은 실적제한 없이 입찰이 진행되는데 전북에 근거로 둔 대학교에서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지역업체의 의견은 이해할 수 없다"며 "건축설계 특성상 창의

적이고 예술적 역량이 중요함에 과도한 실적제한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력히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원광보건대 관계자는 "도내 업체 실적 1만㎡ 이상이 없음을 모른 상황에서 기숙사 연면적이 8,568㎡라 행복기숙사 의무사항이 이의 배 이상이라 1만㎡로 제한 한 것이고 기숙사 건물안전을 가장 중시했"으며 "24일이 입찰일이라 변경공고는 어렵지만 유찰된다면 입찰자격을 완화해서 도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공고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선유도 내 각종 불법·비리 의혹 진상조사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유도 내 각종 불법 및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이 느슨해진 점을 틈타 벌어지는 여러 불법 행위를 반드시 적절히 규정을 검토할 것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배형원)는 지난 22일 관광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서 김종숙 의원은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과 관련해 '대행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개인통장으로 빠져

나가고 필요 없는 용역비에 불법으로 이뤄진 음향장비 운반비 그리고 허술한 정산내역까지 말도 안 되게 운영됐음에도 시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뒷집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정황을 볼 때 리베이트 의혹마저 제기 된다"며 "잘못 사용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환수"라고 말했다.

김경구 시의원은 "선유도 내에서 관행처럼 일어나는 수많은 불법행위에 대해 집행부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특위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 같은 발언에 일부 시의원들도 특

위구성에 공감대를 형성 이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시의원은 "고군산연결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선유도는 군산의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이곳의 불법행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중성)의 해양수산과 행정감사에서 서등단 의원이 선유도 마을기업과 관련된 비리 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선유도 특위 구성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분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경찰서, 신임순경 이색환영식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가 새로이 진입하는 신임경찰을 맞이하여 이색 환영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군산경찰은 23일 오전 경찰서 4층 강당에서 새로 발령받은 신임순경 10명에 대한 인사발령식과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환영회에는 강보현 순경을 포함한 신임순경들과 이들의 부모, 친구들 외에 김동봉 서장,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파출소)장, 동료 직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렬한 환영의 열기를 내뿜으며 진행됐다.

신임순경들은 군산경찰서 직원들로 구성된 색소폰 동아리 '어울림밴드'의 흥겨운 환영 연주에 맞춰 포퓰이 포송이와 함께 손을 잡고 행사장으로 입장했다.

이어 경찰관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이들의 새출발을 축하하는 의미의 기념케이크 커팅과 선배 경찰관들의 장미꽃 증정기 이어졌다.

특히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촬영한 가족사진 동영상 보면서 경찰관이 되기까지 물심양면 사랑을 보내온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신임 강보현 순경은 "시민들에게 칭찬받고, 선배·동료들에게 인정받는 멋진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동봉 서장은 "훌륭한 인성과 프로다운 실력을 겸비한 멋진 경찰 시민에게 칭찬받는 모범경찰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익산한방병원-동그라미플러스 상생협력 발전 위한 업무협약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병원장 이정환)과 동그라미플러스(대표 구형선)가 지난 22일 익산한방병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익산한방병원과 동그라미플러스 간에 체결된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과 상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익산한방병원은 지역사회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의 적극적인 동참과 효율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상호 협력과 협력을 추구하는 협력기관으로서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란 중증장애인이 고용돼 있는 직업재활시설 등에 하청을 위 생산품을 납품받을 경우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익산한방병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장 이점인과 동그라미플러스(대표 구형선)가 지난 22일 익산한방병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식을 가졌다.

이정환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장은 "익산한방병원은 2014년도 경영위기 이후 분원으로 존속되다 각고의 노력 끝에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 9월 본원으로 복귀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역주민의 도움이 없었으면 현재의 성과도 없었을 것이기에, 지역의 가장 어려운 곳부터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다. 다른 기업들도 장애인에 대한 당장의 고용이 합들다면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이용에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의미를 밝혔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항, 10월 물동량 전년 대비 8% 증가

군산항을 통한 항만 물동량이 16년도 10월말 현재 1,650만7,000톤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에 따르면 전체화물 중 수출은 차량 및 부품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한 333만700톤이며, 수입은 양곡(20%), 슬래그(88%), 당류(20%) 등의 증가로 8% 증가한 1,041만2,000톤 등으로 수출입 화물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반면 연안화물(유류,모래시멘트 등)은 275만8,000톤으로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화물인 자동차 전체물량은 17만604대로 전년 대비 5% 증가했으며, 회사별로는 기아자동차는 32% 증가한 반면 현대자동차 2%, 한국GM 28% 감소했다.

주요 수입화물인 시멘트로는 398만 8000톤으로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4만15,045TEU를 처리했으며, 회사별로는 CCT가 39% 증가한 1만 5,945TEU, 석도국제해리가 22% 증가한 2만9,100TEU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대,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박람회 개최

학과별 체험 프로그램 진행

군산대학교가 도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박람회를 개최했다.

23일부터 24일까지 군산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토록하고 교사 및 학생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진학 및 진로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진로박람회에는 도내 10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1,500여명이 참가했다.

군산대학교는 박람회를 통해 고급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 학과별로 총 54개의 부스를 설치하여 학과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상담 등을 통해 진로설정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소개를 클리닉, 이미지 메이킹, 심리상담, 동아리 공연 등 부수행사를 병행했다.

이번 박람회는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고, 대학 측에서는 우수 입학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입학자의 예비 유입 통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기획예산과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금 장학금 기탁

군산시 기획예산과는 제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시상금 80만원을 지난 21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으로 기탁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시상금을 직원 복리 등에 사용하기 보다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기탁하게 됐다.

인창호 군산시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대한민국 지식행정상 수상은 공무

원과 시민 간 지식 소통과 협업의 결과"라며 "약소하지만 시장 발전에 적극 협조해준 시민들에게 보답하고자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동신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은 "지식 축적과 공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한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금으로 마련한 장학금이 스마트한 지역인재와 미래 지식정보를 포용하는 군산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중한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